

에 당신들의 全意志를 나는確實하게 代表할수  
잇스리라自信한다。

당신들은 外面으로 보아서 極히溫順하다 및  
치 天然스러운 무엇에比할만치 아무遜色이업드  
라 그러나 나는確實히 당신들이 碌碌지안이한  
누구임을 알고싶었다。 오직付托하고 싶은것인즉

# 佛專昇格에對하야

To be Gentleman!  
庶務係 曹 學 乳

人材養成을覺悟하야 多年間懸案이 되엿는佛敎專修  
學校가今年부터開校케 되엿는은 느저진것이香遺憾  
이나마我朝鮮佛敎界의將來를爲하야甚히慶賀하며 또  
한朝鮮社會를爲하야서도기뻐하는바이다。勿論이機  
關이朝鮮佛敎界의最高學府이니만큼期待함이만 높을  
信하는것이다。 그러나學校自體를한번回顧할때에는  
一種의遺憾이慶賀와期待를伴하야擡頭되라한다。 그  
것은現下敎育制度로本學校의唯一한生命으로看做되  
는昇格問題이니 아마이것은同一한敎徒로는 더욱더  
共鳴될바르思하노라。

仄聞한바에依하건대某當局者는말하되「目的이布  
敎師養成이닛가昇格하는것이그다지不必要하다」고  
남이야알든물으론 알것업시單純한實力主義, 獨生  
主義, 超越主義로만나아간다하면이것은참無相의行  
士라할것이니그말도그리할듯하나世上事가어대그리  
한가요。 淸濁, 善惡, 優劣, 長短의相對性으로表現  
되는것은人間生活上不得已하며또한必須의條件이니  
이것은아마周到치못한片見에서吐出된言句인가하노  
나。 나는이제昇格을어대까지切實히主唱하며 늦기는

바란호나紙面의關係上다음세가지로簡單히말하고  
저하노라。

첫재 또는卒業者活用問題이다。單一한布敎所養  
成에만目的한다할지언理論보다實際上으로年々히增  
加되는卒業生을모다活用할만한布敎機關이今日에準  
備되어잇는가, 從後로該機關의擴張될것은可히想像  
할餘地가잇는것이며또한잇서야하겠지만은 아마리  
하야도機關은어느程度の限度가잇는것이요人材는限  
도가업슬것이다。 그러면有限度の機關에서無限度의  
人材를얻지다收容할것인가 그만흔剩餘數의處置方  
法이果如何。 그의生活을保障할만한其他의무상特殊  
方針이잇는가또는잇슬가하는것이자疑問이다。 한  
쪽一般的方面에應用될만한資格을養成키로目的한敎  
育機關으로變換치안호면여러方面으로보아서到底히  
아니되겠음을切實히늦기는바이다。

둘재로는 學生募集問題이다。敎務院理事會에서  
決議하기를各寺出資額에比例하야每年定員을記送하  
기로하였다한다。 이것도相當한考慮를要한것이라할  
지나말하자면窮策이라하겠다。 아마리그와갓치決議  
가되었지만은實現에들어서는여러가지複雜한問題로  
永久히繼續케는不可能의事實이라하겠다。 또는一

般으로보아서도누구나無資格한學校에志願할자가업  
슬것이며設使잇다하드래도無資格한入學者로無價值  
한學校가되고말것은事實이다。 그러면內으로外으로  
學生의求路가共斷된空虛의建物만으로將次부엿을할  
것인가。

셋재 또는敎理弘布問題이다。設使寺刹學生이每  
年增加된다할지라도單純한徒弟養成으로만目的한다  
할지면 너무나偏狹한敎育機關이라한다。 相當한資  
格을具備하야一般的으로入學의路를開示하는것이敎  
育機關自體로보아서도妥當한것이며또는歸이敎理를  
研鑽發揚케하는眞實한布敎機關이될것이라하노라。

以上여러點을보아서 어대까지昇格을主唱하는바  
이다萬一그러치못할지면寧히學校란名義보다特殊講  
院을意味한부상看板을벗치고싶다。 要컨대佛專은  
朝鮮佛敎界에不可無의設設한最高學部의機關이며各  
寺刹의期待와誠意로聚凝된儼然한建物인즉 다시一  
步를進하고赤誠을添하야財團을增額하야價値잇고  
完全한機關으로써내기를바라는바이다。

最後로話題되는것은增額問題이다。 今일까지頭痛  
으로알론六十萬圓財團이오히려未整된그우에또다시  
부상힘으로增資가될것이며骨湯을먹이나하는가하는

것이 아마 地方의 輿論일 것이다. 實은 既爲 賢은 지음에 骨湯한 그릇만 좋던 먹고 昇格만 식히고 보면 學生 起送에 每年 大骨湯 그릇을 버릴 수 있스며 또는 地方 情況에 未熟한 나으르 씨 或은 錯見 일지는 爲으 깃스나 全 鮮 寺刹의 六十萬町步 是는 巨大한 森林中으로 容易 할 것이 라고 믿는다. 아모리 哲學博士의 머리처럼 必 거진 山이라 할지라도 一町步에 平均 一圓의 收入은 어 들 수 있슬 것이 라 한다. 或은 每 年이 아니고 一圓이다. 一圓이 過하다면 七十錢式이라 도 四十萬圓의 增資는 그 다 지어 餵지 아니 할 것이 라고 믿는 바이니 우리는 實에

에 奮發하야 一切 唯心造의 原理를 조금만 利用하자는 것 이다. 多言을 不要하고 一말한 것이 아니 된다면 아 니 된다는 것보다 誠意가 入한다는 것이 誠意가 入는 教育 機關은 차라 리 그 만 두자는 것이 徑截門일 것이다. 너무 나 過言가 入나 不得己한 事實下에서 自然吐 出된 것이 다. 或은 諸 學校及 敎務院當局者 諸氏는 勿論이 어니와 各 地方當局者 僉位며 老德 青年의 一般 敎徒는 從來의 誠 意를 다 시 한번 翻覆하사 更 一 次 深重하신 一考를 下하시 기를 企望하야 마나이다.

### 優曇鉢羅華의 再現을 祝하고

東京에서 崔 英 煥

있던 佛敎學徒가 그의 洗鍊한 말로서 佛敎를 指示 하여 가 르대 「向 上門에서 入는 佛敎는 學術이며 哲學 이다. 或은 向 下門에서는 佛敎가 技巧은 藝術이 다」 하였습이다. 學術이며 哲學이 고 보니 人間으로 可能한 方法으로서 菩提를 自證하게 되며 造作 是는 藝術이 고 보니 眾生을 度는 것이 佛敎 人文史

가 如實히 말하고 잊지 안 습는가? 佛敎는 그 有史以後로 여러 地方에서 만은 民衆을 敎化하여 왔스나 決코 盲目的으로 信仰하라고 說거리로 써서 信仰을 팔나 고 하지 안 하였습은 여러 분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습지요! 或은 諸 方에서 愚迷한 民族의 是는 글을 가 르칩스며 是

한 말을 가 르치 理法을 推知하는 데 가장 適合하게 熱心으로 努力하여 왔스며 그 後에 세 世를 차 리어서 結을 알 게 될 때 에는 文明이 가져 온 人文의 藝術의 蘊蓄을 가 저다 주었스며 實業百般에 對한 學問을 가 르쳐서 그 民族으로 하여금 各自가 自覺하는 種族됨을 要望하지 안나 하여 습는가?

釋尊의 生地인 印度에서는 佛敎가 時間의 觀念과 記述의 學問이 되었섯스며 한 번 慈嶺을 넘어 支那에 이르러서는 唐宋以後의 一切 學의 源泉으로서 異彩를 發輝하여 왔스며 本邦에 이르러서는 다시 佛敎黃金時代를 形成하야 靑丘鷄林에 다 實現하고 그 巧妙한 藝術로서 다시 極東에 다 宣布하여 日本文化를 養成하여 내었습은 다시 贅語를 가 자 할 것이 업사 오리 다 만은 印度의 佛敎는 暴惡한 異敎徒의 迫害와 敎團內部의 腐敗로서 數世紀가 못하야 오 주 佛蹟을 차 저 滅絕이 닐 니다. 或은 그 리고 支那에서는 三武一宗의 排佛毀釋이라 는 人文史에 보 기 실은 史料를 보 게 되나 그는 實으로 얼마 동안 한 時間에서 反佛運動이 있섯습에 不過하 코잇습이다. 本邦 佛敎는 三國時代 佛敎輸入한 爾來, 新羅時代에서는 佛陀의 正風을 傳하러는 慈藏이 있섯

스며 이와 正反對로 佛陀의 正意를 傳承하러는 元曉, 浮雪等의 輩出을 보 게 되었스며 高麗時代에서는 敎學을 完成케 하에는 佛敎의 光壁이 될 만 한 結集이 唯一의 信條로서 義天等이 出世하여 世界無比의 刊藏을 成就하고 學問으로 는 西天의 那爛陀 精舍와 唐宋의 台密禪等의 諸山의 學風을 凌駕하고 實답계 實社會에 實現하여 온 그 功績은 甚나 深刻한 佛敎를 本邦에서 根絶을 한 것이 李朝數百年來에 行政當局者들의 根機구는 連續的 計畫政策의 한 아 이었습은 世界 佛敎文化史를 보 는 中에 그 類를 發見할 수 업는 迫害와 虐待와 恥辱을 疑心 업시 加하여 왔스며 文化가 주는 一切에 對하야 暗愚하게 도 背恩의 行動을 公然히 遂行함에 不拘하고 우리 들 先師 들은 實스나 精進하여 왔스며 甘受하여 왔습니다. 可憐한 그 이 들 先師의 是는 社會一般의 人格과 生命財產이라는 것도 全然히 無視하여 저 왔스나 그러나 그 이 들은 宗敎의 最後의 勝利를 夢想하고 一切의 迫害에 對하야 法悅로서 對하며 難行苦行을 繼續하면서 社會 衆生을 敎化하여 왔습니다. 或은 佛陀가 修行 期에 있슬 때 와 같치